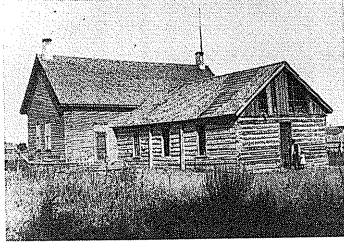


성도의 빛 2
1981



성도의 벗 2

1981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차 례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밴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앤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십일조.....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질의 응답로이 더블류 독시..... 5

분쟁을 피함에이 라바 토르녹..... 8

이스탄불과 텍스버그 텐튼 와이 브루어튼.....11

미샤 마르코프월리엄 헤일 카.....15

개미 단지21

어느 길로 갈까요?렉스 시 리브 장로.....22

맛바꾸기클라우디아 레딩톤.....24

심심풀이로버타 엘 페어럴.....28

할아버지의 봉사와 고귀한 부름캐드린 루백.....29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선교 사업을!로즈마리 펙.....30

익살꾸러기와 함께 오다.....안야 시 베이트맨.....37

지역 지도자 메시지이호남 부산 선교부장.....44

해의 소식45

지역 소식48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87호, 제17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십일조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십일조를 바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십일조는 마음내키는 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꼭 바쳐야 하는 부채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교리와 성약 104편에서, 주님은 십일조를 바쳐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 (교성 104 : 13)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곧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교성 104 : 14—18)

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04편이 주어졌을 당시에, 성도들은 십일조가 아니라, 헌납의 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4년 뒤인, 1838년에 주님은 십일조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는 합당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재정적으로 크게 곤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십일조로서 당신의 백성의 재물에서 얼마큼을 요구하시는지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교성 119편 서문)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사람들이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라.

“이는 나의 집을 건축하며 시온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신권을 위하여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빛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19 : 1-4)

주님에 대한 합당한 의무

이 경전에서 볼 때 십일조는 모든 사





람이 주님께서서 만드신 것을 사용한 매
가로 주님께 지불해야 할 빛인 것입니
다. 인간은 십일조의 빛을 지고 있으
며 주님은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
니다. 주님은 모든 다른 채권자보다 우
선합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진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라도 주님께 진
빛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
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좀 놀라실지 모
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
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를 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일조를 바칠 만한 큰 신앙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해 주시므로 다
른 채권자들에게 빛을 갚을 능력도 축
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건전한 투
자로 생각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
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
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
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
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말라기 3 : 10—12)

이와 같이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약
속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가
르치신 것과 그가 니파이인들에게 그것



을 그 기록에 적어 넣게 하여 물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지시 하신 사실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함

십일조를 내는 것은 또한 화재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재림하실 때에는 큰 화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말라기는 십일조와 헌물에 관한 말씀을 이와 같이 연관시켜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라기 4 : 1—2)

이 예언은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인용하였으며, (니삼 25 : 1—2) 이 말씀을 약간 바꾸어,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말했습니다.

1831년 9월에 주님은 그의 재림에 따르는 화재에 관하여 더 자세히 계시하셨습니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

“오늘이 지난 후에 불에 타는 때가 오나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일 자랑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루터기같이 되리니, 내가 저들을 불

태워 버리리라. 나는 만군의 주라. 바빌론에 남아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오늘이라 칭하는 동안에 일할지어다.”(교성 64 : 23—25)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십일조를 바칠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평온과 위안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적게 내는 것보다는 많이 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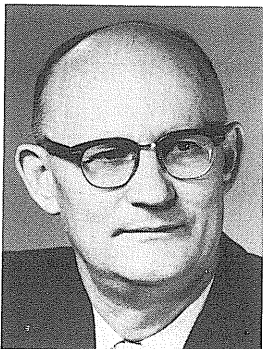
이제,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게 십일조를 계속 바치시고 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지상에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시대의 의인들과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할 수 있게 해줄 이러한 기록을 갖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필수 요건과 십일조의 법을 매일매일, 매년 충실하게 지켜 나감으로써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 생의 목적을 완수하고 그의 면전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로이 더블류 독시,
교회 협의 검토 책임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고
성신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세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세주로부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기도드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만은 자신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삼 19 : 17—30 참조)

또한 주세주는 우리에게 자신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자신을 구하고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교성 88 : 63—64 참조)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으며 신회의 한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 개개인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째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자면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많은 계시가 이와 같은 권고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위대한 자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성 39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진 “스스로 있는 자” (출 3 : 14)라는 이름은 필연적으로 구세주가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는 현대 경전에서 여호와(교성 110 : 3)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오기도 했는데, 고대에도 같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대속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은 악마에게 속하게 되어 악마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잘리워 나가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 9 : 8—9 참조)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함으로써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1. 그의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는 우리에게 그와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니삼 12 : 48 참조) 온전함은 모든 말일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계명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자비하셔서 그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을 축복하시리라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교성 46 : 9 참조)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 생활의 목표를 얻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니이 32 : 8 참조) 기도하지 않는다면, 유혹에 빠지게 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성 61 : 39 참조)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면 “승리자가”(교성 10 : 5)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을 받아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니파이삼서 18 : 19 ; 20 : 31 참조) 그들이 모두 신회의 일원이라면, 이처

럼 “가까운 느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3. 경전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세주에게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이해력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해를 입은 사람은 해를 끼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 5 : 23—24 참조)

경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개 가장 신앙심이 깊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알려진 바입니다.

4. 성신의 영향력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성령의 동반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그들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받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구세주에 대한 친밀감은 혼

“영적인 실행을 해야 합니다”

히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5. 총관리 역원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신 종은 경전을 해석하며, 현대의 문제점을 해석하고, 완전히 이르게 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총관리 역원의 영감받은 가르침을 따른다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 그와 더불어 승영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고, 심지어는 지도자의 충고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의 영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의 충고를 거역하면 배도하게 되고 성령을 잃게 되지만, 지도자의 충고를 좇고자 하면, 영의 확인으로 결국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구세주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그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주께서 그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교성 124 : 45—46 참조)

6.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세주와 관계를 맺게 되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성찬식은 구세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받들며 성령을 구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찬식에서 기억해야 할 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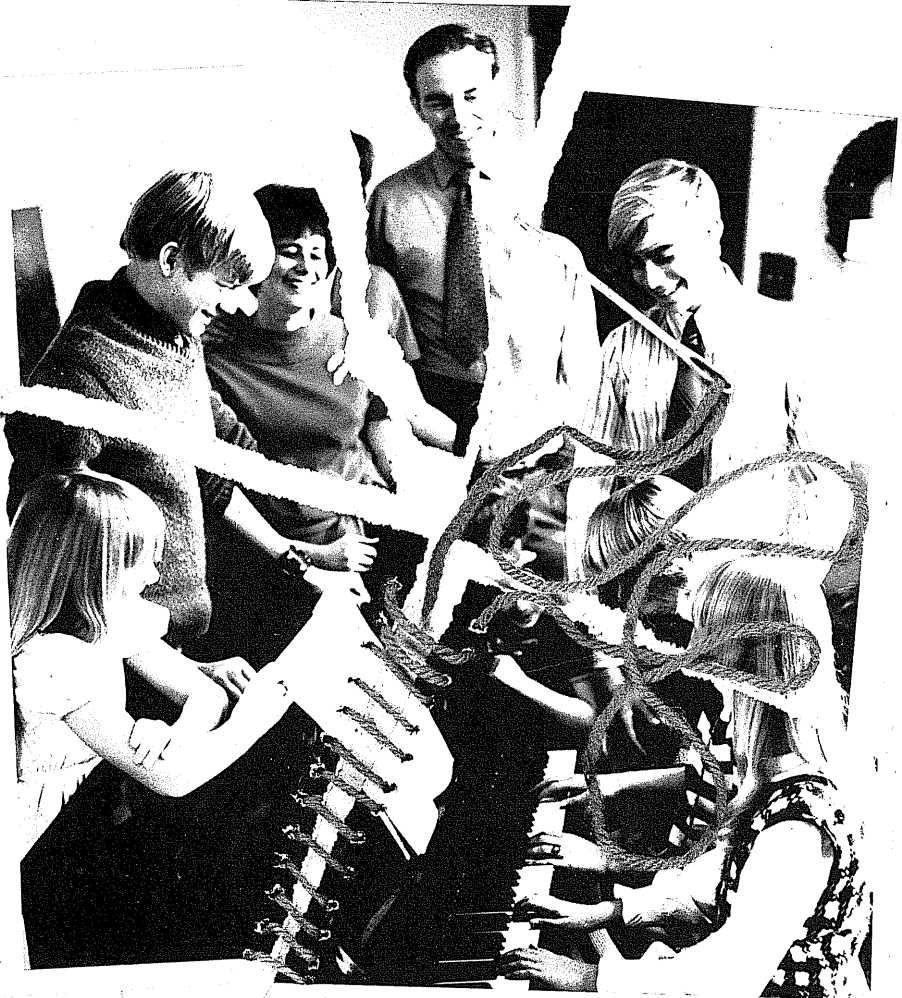
7. 영적인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십일조, 금식 헌금, 기타 헌금을 바치며, 가정 방문 교육, 신권 및 보조 조직에서의 가르침, 지도자의 부름 및 기타 여러 부름을 이행하는 봉사 행위는 모두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대로 구세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소망을 늘 간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목적은 주께서 에녹에게 “나와 함께 행하라.”(모세서 6 : 34)고 하신 충고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와 함께 행할 때, 인간은 경전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의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같이, 그것은 세상에서 성별되어 주님의 대업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분쟁을 피함

에이 라바 토르녹



사탄은 교회에서 분쟁의 씨를 뿌리
고자 합니다. 분쟁의 영을 갖고 있
는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
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에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
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같
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투는 정신
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비
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
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니삼 11 : 29)

때로는 지도자가 하려는 일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감독과 상당히 감정이
상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테
이크 부장인 나에게 와서 감독이 그들
의 아들에게 제사 정원회에서 감독의
보조가 되어 달라고 했으며, 정원회에
나오기에 앞서 머리를 자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매우 화가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더 짧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
니와 아버지는 내게 불평을 늘어놓으면
서 아들이 담배나 술이라도 했다면 얼
마나 문제가 심각했겠느냐고 말했습니
다. 그에 비하면 머리 자르는 것은 너
무도 사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독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겠습니
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
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 질문에
다소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그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는 그들에게 그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집에 가서 감독이 것처럼 그를 사랑하
고 존경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겠다고 말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감
독은 분명히 그가 지도자의 능력을 발
휘하여 와드내의 다른 모든 제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
니다. 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순종하
는 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순종은 흔히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 훌륭한 부부에게 모든 가능
한 방법을 다하여 아들의 눈에 감독이
보다 훌륭한 분으로 비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
직 불행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그들
의 아들에게 감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
지 않았으며, 자신이 선택한 마음에 드
는 지도자만을 따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 준다면 감독은 조
금도 그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이러
한 방법은 그들이 그 아들에게 네가 옳
으니, 심판관처럼 앉아서 그를 인도하
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언행을 살펴
보거나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아들을 시험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그 부모가 이처럼 조그만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투는 영이 눈독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영을 통하여 분쟁은 악마의 것이고 오직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나는 선교 본부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신학 이론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나이든 자매가 그 선교부로 오게 되어 그 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하는 도중에, 그녀는 내가 가르친 개념에 반대하며, 자신의 주장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곧 그녀가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이 상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한 자매에게 것처럼 무감각하고 생각없이 대한다면 나는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 반이 끝나자 나는 선교사 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조사해 본 나는 그 자매 선교사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말을 찾았습니다. 내가 찾아낸 것은

기뻐으나,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선교사들 앞에서 그녀를 당황케 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나는 병커 선교부장에게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잠시 내게 시간을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가서 내가 한 일을 사과하고 도서실에서 찾은 휘트니 장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사랑에 가득 찬 감정이 내 가슴속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나도 그 순간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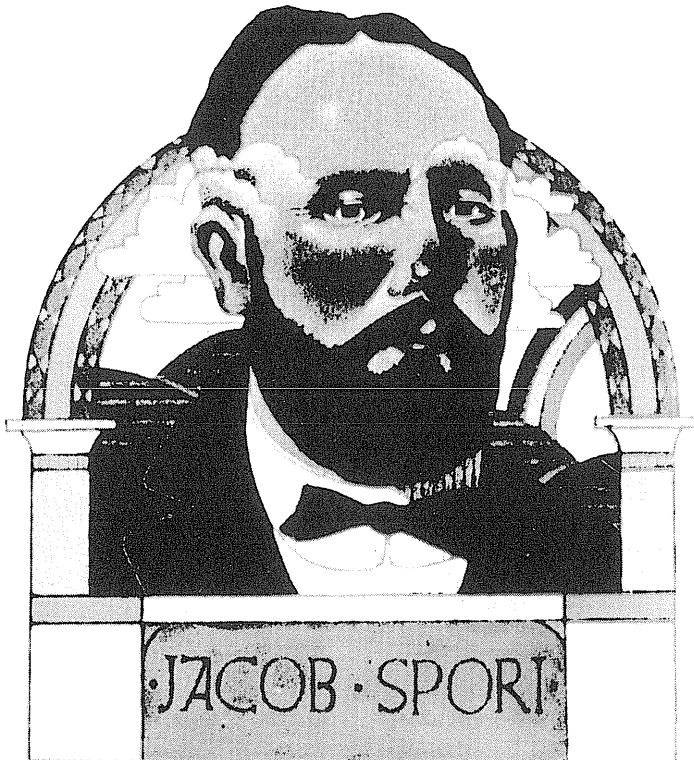
그날 아침의 기도는 더욱 진지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웠고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 이 자매는 나에게 와서 다시 감사했습니다. 다투 뒤에 곧 회개하였으며, 그 결과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분쟁을 극복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분쟁은 가족 관계를 해치며 교회의 원활한 발전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잘못을 회개하고, 살아 계신 예언자의 충고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분쟁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과 자제심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게 될 때, 영원한 율법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

이스탄불과 렉스버그

제이콥 스포리의 선교 지역

덴튼 와이 브루어튼



게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해인, 1847년에 제이콥 스포리는 스위스 알프스 지방에 있는 한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며 지구상의 양 대륙에서 교회에 헌신하였다. 즉, 그는 독학으로 터키어를 배우며, 이스탄불에서 선교 사업을 했고, 릭스 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재직적인 면도 혼자 도맡다시피 하였다.

제이콥은 스위스의 오베르빌에서 성장했다. 그의 부친은 대대로 많은 교사와 교수들이 배출된 볼란서의 위그노파의 후예였다. 제이콥도 역시 학자풍의 인간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을 사랑하였으며, 13세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며, 9년 후에는 수학, 미술, 음악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다. 제이콥은 결국 13개 국어를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

제이콥의 부모는 기독교적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데 헌신적이었다. 그는 부모에게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배우게 되었으며 일생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과시했다.

제이콥은 28세 때에, 같은 마을의 아름답고 교양있는 처녀인 맥딜리나 로시와 결혼하였으며,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어 인생을 더없이 즐겁게 보냈다. 그는 스위스에서 두번째로 큰 칸톤 베른시의 회계사, 재무 사정관, 계리사를 포함하여, 선친의 직책을 모두 물려받는 명예를 받았다.

그러나, 1870년 말에 제이콥의 생활은 극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곧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는 교장의 자리를 내어 놓게 되었으며, 시에서 말은 직책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충격을 준 것은 제이콥의 장인이 그의 아내와 네 자녀를 데려간 것이었다.

제이콥은 자신이 시온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1879년에 유타주 로간으로 이민했다. 그는 그후 5년간 외롭지만 변화가 많은 생활을 했다. 그는 영어와 교회 역사를 연구했으며, 제재소에서 일하고, 철교를 놓기도 하였다. 스위스에 있는 그의 누이 동생, 안나 클라라가 편지를 전해 주어 아내와 자녀들과 서신 연락을 계속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보낸 첫째는 제이콥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스토우월은 부친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했으며, 낙담한 적이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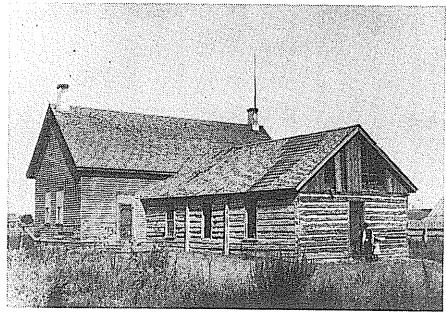
1884년에 스포리 장로는 터키 지역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는 성탄절이 지나며칠 뒤에 이스탄불에 도착했으며, 곧 전도에 힘썼다. 처음에는 통역자가 필요했으나, 그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 3개월이 지나자 터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는 터키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으며, 볼란서어와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고, 복음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다. 그의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회복된 복음도 알게 되었다. 제이콥은 독일어도 가르쳤는데, 이것만은 음식과 의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가르쳤다.

1886년 여름에 스포리 장로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에서 그 역사적인 나라의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받은 첫번째 사 람들이었다. 울슨 하이드가 1841년에 그 땅을 헌납하기는 했으나 전도를 한 것 은 아니었다. 스포리 장로가 팔레스타 인에서 처음으로 칩체를 배운 것은 1886 년 8월 29일에 요한 조지 그로에게 칩 례준 것이었다.

스포리 장로는 요파, 다마스쿠스 및 예루살렘에까지 선교 사업을 펼쳐 나갔 다. 이곳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는 작은 방편을 통해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지방법에 의하면, 황혼녘에 성문이 닫치기 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이파 시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스포리 장로는 매마침 병중에 있던 한 구도자와 함께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다. 젊은 물몬 장로는 그 친구의 병세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가 없었다. 그날 저녁, 구도자가 좀 나 아지자, 제이콥은 그 도시를 빠져 나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성문이 잠겼으며 잡히면 감옥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가 도시의 해변가를 거닐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던 차에, 어선들이 항 구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이 이튿날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그들 을 도와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가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 일이 다 끝나자 그물을 말아 올리고 작은 배에 올라타 바다로 나가기 시작 했다. 스포리 장로는 아무 말 없이 그 배에 올라탔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은 자리에 앉았다. 다음날 그들은 카 이로에 닿아, 스포리 장로는 배에서 뛰



1895년의 베노크 스테이크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가 후에 리스 대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이콥 스포리가 그곳에서 초대 학장으로 일했다.
사진 제공, 제이 스펀 앤더슨 소장 비와이유 사진 기록 보관소.

어내려 그 시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스포리 장로는 3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해임되어, 스위스로 돌아왔다. 그 곳에서 그는 일단의 성도들이 시온으로 여행하는 것을 도와 주라는 윌포드 우 드렐 대관장의 지시를 이행했다. 그는 거의 일년에 걸쳐 이 일을 수행했다.

이 임무가 다 끝나기 전에, 스포리 장로는 그때까지 스위스에 있던 아내에게서 전갈을 받았는데, 아내는 만팔 캐 더린이 그네에서 떨어져 죽은 일로 몹시 비통해 하고 있었다. 영적인 능력으로 치유하는 복음의 힘을 잘 알고 있던 제이콥은 교회의 교리를 아내에게 써 보 냈다. 그녀는 이러한 새로운 교리에 감명을 받고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 하게 되었다.

스포리 부인은 칩체를 받기로 하고 남편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스위스에 도착하여 함께 재회하였다. 그녀는 그후 복음이 그녀의 생활에 가져다 준 영원한 진리를 열렬히 간증하고 감사했다.

시온으로 떠나기에 앞서, 스포리 장로는 여러 권의 교회 책자를 불란서어로 번역했다. 역시 재능있고, 학식이 풍부한 여성인 그의 여동생 안나 클라라 스포리가 그의 일을 도와 주었다.

결국, 제이콥 스포리와 그의 아내와 세 명의 자녀, 제이콥과 막달레나와 루이즈 및 그의 누이 동생 안나 클라라는 배론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배는 1888년 6월이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였다. 제이콥은 렉스버그 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렉스버그에는 집이 몇 채 없었으므로 스포리 가족은 텅빈 십일조 창고로 이주했다. 그들의 다섯째 자녀인 엘리자베스가 1888년 7월 6일에 그곳에서 태어났다.

제이콥 스포리는 4년간 학장으로 일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족의 친구가 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질병이 나들 때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주 둘러보곤 했다.

그의 딸은 이렇게 회상한다. “1891년에 디프테리아 전염병이 나들 때에도, 부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안수하며 유가족을 위로하곤 했어요.” 그의 두 딸도 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으나, 그는 그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었으며, 그것은 사실로 입증되어 되었다.

학교에서 4년 동안 학장을 지낸 스포리 장로는 자원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 뒤 그는 농장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일은 그후에 그 지역의 농업에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 그는 에진 벤치에서, 스포리 운하로 알려진 운하를 개통했다.

제이콥 스포리는 다시 교단에 돌아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190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주치의는 그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니 일을 하지 말고 더 많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이콥은 “쉬면서 죽느니 일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대답했다.

다재다능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바로 제이콥의 생애를 특징짓는 두 가지 특성에 속한다. 그는 위대한 교육가이며, 언어학자요, 선교사였다. 그는 지질학과 광산학에 심취하여, 55세에 야금학에 관한 최종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이스탄불에서는 의약품에 흥미를 느꼈다. 음악은 그에게 큰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다. 과학과 농업이 그의 생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인생은 그의 딸이 하는 말에서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다. “부친은 불붙는 듯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기회가 나는 대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부친은 인간이 어떠한 일로도 복음의 진실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친은 것처럼 큰 희생을 치르셨음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로 느낀 평안과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도 견줄 수 없었습니다.” *

미샤 마르코프

윌리엄 헤일 카

발칸 지역 선교사

제이콥 스포리와 미샤 마르코프가 한때 지나간 길—제이콥이 미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때가, 미샤에게는 일생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던 첫걸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길 잃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다.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신 하는데……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 25—27)

이처럼 꾸밈없는 말은 바울이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희생으로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그들은 그 순간부터 복음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샤 마르코프는 자신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를 전기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자서전의 표제지 안쪽에 서툰 영어로나마 조심스럽게 이렇게 몇 줄 적었다. 나, 미샤 마르코프는 여덟 왕국에 복음을 전파했다. 1. 벨기에, 2. 헝가리, 3. 루마니아, 4. 불가리아, 5. 독일, 6. 터키, 7. 러시아, 8. 세르비아. 나는 일반 법정에 11번, 현 치안 판사 앞에 4번, 고등 법원과 대법원에 2번 섰고, 3번 구금되었다. 경찰관이 문 옆에 지켜 서서, 나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들여 보내지 않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및 세르비아에서도 그러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는 2번이나 추방당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에서는 2번 투옥되었다.”(미샤 마르코프, “일대기”, 자필, 교회 역사과 기록 보관소)

소리없는 열성에 가득했던 조용한 사람인, 미샤 마르코프는 교회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몇몇 지역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19세기의 선교사가 되었다.

1854년 10월 21일에 헝가리에서, 세르비아계 아버지와 루마니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세르비아 정교회의

사회 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짙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보기를 몹시 바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32세 때에 미혼의 몸으로 그는 성지 순례 여행을 했으며, 계속해서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이 발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다. 8개월 후에 그는 그가 다니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스탄불에서 청교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던, 말일성도 터키 선교부의 제이콥 스포리 선교부장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있는 자기를 시현으로 보았는데 그 도시에는 자기가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스포리 선교부장은 곧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3일 동안 시현 속에서 본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허사가 되자, 그는 이스탄불로 되돌아가는 차표를 끊었다. 갑판 위에 서서 여객선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시현에서 보았던 그 사람, 바로 미샤 마르코프가 배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1887년 1월에 이스탄불로 가는 여행은 나홀이 걸렸다. 스포리 선교부장은 미샤에게 그 시현을 말했다. 미샤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나에게 복음을 가르키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를 천사로 생각했다. 사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다.”(“일대기”, 51페이지) 이스탄불에서 스포리 선교부장은 그에게 다른 선교사 에프 에프 힌체 장로와 제이 매리온 태너 장로를 소개했다. 그는 1887년 1월에 흑해에서 침례받았다.

그는 아직 성임받지는 않았으나 부모

를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였다. 부모는 수긍하는 듯이 보였으므로, 그는 힌체 형제를 전화로 불러, 그곳으로 와서 그들에게 칩례를 주라고 했다. 그러나 힌체 형제가 도착했을 때, 그와 미샤는 그의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힌체 장로는 그에게 신권을 성임하고, 이튿날 그들은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24시간내에 미국인들은 치안판사 앞에 끌려 와 48시간내에 그 나라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샤는 그에게 이 48시간을 이용해 선교사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치게 했다. 그 가르침은 간단했다. “마르코프 형제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이며, 칩례를 주고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를 베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기회있는 대로 어디서나 복음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일대기”, 52페이지)

미샤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칩례를 줄 수 있기 전까지는 미국으로 이민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우선 헝가리에서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항구 오데사로 여행했다. 그는 세르비아어, 불가리아어, 헝가리어 및 독일어는 할 수 있었으나 영어는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벨기에의 안트워프로 가서 그곳에서 독일인과 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불품없이 보였으므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다.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주님은 나에게 내가 벨기에에서 선교부를 개설하는 첫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셨으며, 나

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시기를 거듭 간구했다.” (“일대기”, 53—54페이지)

주님의 영이 그를 어느 공원의 벤치

“마르코프 형제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이며
칩례를 주고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를 베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기회있는 대로
어디서나
복음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칼 벡하우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 곧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눈에 기쁨의 눈물이 가득 피었다.” (“일대기”, 54페이지) 다음날 그는 칼의 가족을 만났다. 개종은 빨리 되었지만, 칩례는 지연되었다. 칼은 헨리엣 이이젤만이란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동

거하고 있었으므로 미샤는 그들에게 침례주기를 거부했다. 화가 난 칼은 미샤를 기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헨리엠티는 1888년 10월 17일에 그녀의 만아들 프레데리크와 침례를 받았다. 이들 뒤에는 그녀의 세 딸이 침례받았다. 이주일쯤 지나자, 마음이 겸허해진 칼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다. 미샤는 그들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미샤는 일을 하기 위해 발칸 지방으로 되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스위스—독일 선교부에 벨기에로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세 사람이 도착할 때쯤 해서는 백하우스 가족들이 구도자를 소개하여 80명이 침례를 받았다.

미샤는 충분한 돈을 모은 뒤에 이민했으며, 1892년 10월 17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다. 그는 이발관을 차리고 노르웨이인 개종자인 벤티 핸슨과 1893년 5월 24일에 결혼하여, 새로 헌납된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50번째로 결혼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두었다. 미샤는 귀화하여 시민권을 얻었으며, 1899년에 칠십인에 성임되었고 처음으로 공식 선교 지역에 부름받았다. 유럽은 당시 여러 선교부로 분할되어 있었으나, 그가 지명받은 공문서에는 단지 “유럽”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 2년간 여러 선교부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1899년 5월경에 그는 현재 유고슬라비아의 남부 지방인 세르비아에서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다. 3개월 후에 그는 세르비아의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헝가리에서 쫓겨났다. 헝가리에서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는 무정부주의자로 체포되

어 감금되었는데 그곳에서 법관들이 영어를 잘 아는 상인을 찾아내 그의 서류를 조사하게 했다. 그는 1899년 7월에 헝가리에서 쫓겨났으며,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한 느낌을 받았으며, 완전히 만족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일대기”, 61—62페이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후 그는 그의 옛 친구인 에프 에프 힌체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이스탄불로 갔다. 일주일 후에, 그는 교회를 찾고 있는 불가리아인인, 아지르 디미트로프와 함께 루마니아로 떠났다. 미샤가 1899년 7월 30일에 그를 침례한 후에, 아지르는 그의 첫번째 동반자가 되었다. 부가레스트에서 2주일 후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후 침례를 베풀지 못했다.

전에도 그랬던 것같이 미샤는 기도를 드렸으며 1899년 12월 10일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라는 지시를 꿈속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 꿈에서 문이 열리더니 나는 어떤 노부인이 조그만 사각 테이블에 팔을 올려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부인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달고 나를 보며 조금 웃어 보였다. 내가 노부인에게 성경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니, 그녀는 있다고 말하며 젊은 여인에게 성경을 가져 오라고 했다. 젊은 여인은 성경을 가져 와 나에게 주었다. 나는 성경을 펴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크게 기뻐했고 우리는 모두 기쁨에 넘쳤다.”

그는 그 가족이 누구인가, 또는 그들이 적어도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안 것

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곧장 그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그의 꿈은 하나 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두 달 후에, 그 부인과 딸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침례받았다. (“일대기”, 62—64페이지) 침례 그 자체가 선교사의 신앙을 강화시켰다. 1900년 2월의 일이었다. 미샤는 침례 의식을 베풀기 위해 목욕탕을 빌려, 그의 개종자들과 함께 갔다. “우리가 걸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곁에 동반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그를 볼 수는 없었다. 내가 침례식을 베푸는 자리에서 앞을 보니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는 사라져 버렸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이니, 두려워 말라고 속삭였다. 나는 스스로 마음이 강해지고 기쁨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일대기”, 64페이지)

그후 그는 다섯 사람에게 더 침례를 베풀었다. 조그만 지부에서 루마니아어와 독일어와 불가리아어와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자, 미샤는 다시 체포되어 처음에는 지방 법원으로, 다음에는 고등 법원으로 넘겨졌다. 그가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가부와 높은 천장으로 되어 있는 원형 법정 의 중앙에 홀로 서 있을 때 “신전부처럼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머리 위 공중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해주었으며,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복음의 첫째 원리와 배도와 회복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법정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의 장면이 재연되는 듯, 판사들은 저희들끼리 배도에 대하여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미샤는 여러 날 동안 투옥되어 빵과 물로 연명을 하다가, 다시 추방당했다. (“일대기”, 66—67페이지)

그는 불가리아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여러 명의 목사들로부터 정규 집회가 끝난 뒤에 그 회중에게 연설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경찰서에서 선교사로 등록했다. 신교의 한 종파이러니 생각한 경찰은 그에게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한 신교의 목사가 그에게 대항하며 그를 모욕하고 그를 저지시키려고 했다. 그 목사가 신문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광고문을 내며, 사람들에게 물문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고, 집회를 갖는 곳의 주소를 실었다. 이것은 오히려 집회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는 도중 길에서 우연히 미샤는 그 목사를 만났는데 무료로 널리 교회를 선전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러나 물문이 크게 인기를 얻은 것에 놀란 목사들은 미샤가 물문이 아니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등록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체포했다. 책략이 들어맞았던 것이다. 동정을 표하는 판사와 많은 사람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리아에서 쫓겨났다. 꿈의 인도를 받아 그는 1900년 9월 30일에 헝가리의 티메버에 도착했다. 미샤는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아이다호주 소다 스프링스 출신의 하이럼 엠 로 장로가 독일 선교부를 통하여 그의 동반자로 지명되었다. 몇 주일도 안되어 그들은 여권과 선교사 신분증을 압수당하게 되었다. 미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으며,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합법적

인 절차에 따라 일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3일간의 경고를 받고 1901년 4월 1일까지 떠나라는 명을 받았다. 3월 30일에, 어두움을 틈타 그들은 12명에게 칩레를 빼돌렸으며, 2명의 개종자에게 31명이 참석한 조그만 지부를 돌보도록 하였다. 그런 뒤 그들은 헝가리를 떠나 독일로 향했다.

드디어 “공식적”인 사명을 맡은 미샤는 뮌헨에서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되돌아가기 전에, 네 명에게 칩레를 빼돌렸으며, 1901년 8월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했다.

그날로부터 약 2년 뒤인, 1903년 8월 3일에 미샤는 두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 리버풀에서,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이며 유럽 선교부장인 프란시스 엠 라이만 장로는 그에게 휴 제이 캐넌 독일 선교부장 밑에서 특히 러시아를 담당해 일하도록 지명했다.

그는 즉시 떠나, 5주일간 헝가리에 머물면서 일했으며, 러시아의 리가의 독일인촌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에 등록하면서, 그가 독일인들에게 간 것이 다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 정교회의 권위나 교리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게 되면 2년간 시베리아로 유형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러시아 시민을 다른 종교로 귀의시켜 칩레를 주면 12년간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선고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그러한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독일인 집단 속에서 일을 계속하여, 그의 성공적인 전도 사업에 놀란 성직자들이 그를 다시 법정에서 처단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친절한 판사는 항소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미샤는

어느 변호사들도 물문을 변호해 주지 않을 것이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 대중에게 별로 호평을 받지도 못할 일을 변호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샤는 도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터키 선교부로 갔다. 그의 요청에 의하여 그는 다른 지역으로 지명받았으며 1905년 11월 1일에 그가 해임되기 전까지 그는 10명을 더 칩레하는 기록을 남겼다.

미샤의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유스런 나라에서 교회의 집합 장소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미샤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이발사로 정착했다. 그의 워드 기록에는 그가 충실하고 부지런한 가정 복음 교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19년에 그는 대제사로 성임되었다. 그가 두번째의 역사적인 선교 사업을 마친 지 33년 후인 1934년에 그는 사망했다.

그의 조용한 말년은 어쩌면 그의 일생의 사명에 합당한 것이리라. 그것은 그의 담대성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리없는 열성에 가득했던
조용한 사람인,
미샤 마르크코프는
교회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몇몇 지역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19세기의 선교사가 되었다.

*



개미 단지

개미 집단의 생태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답니다. 여러분도 직접 개미 집을 만들어 보면 땅속에서 복잡한 굴을 파고 방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부지런히 먹은 것을 모아들이는 것도 볼 수도 있지요. 조그만 개미가 자기보다 큰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답니다. 여왕 개미(왕 개미는 없답니다.), 병정 개미, 일개미가 있고, 일을 도맡아 하는 암개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개미 단지 안에 있는 개미들을 관찰해보면 개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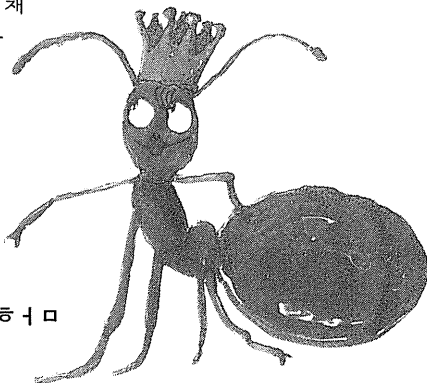
개미 단지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유리병 단지 2개(하나는 약간 작은 것으로 하고, 큰 단지는 플라스틱 뚜껑이 느슨하게 덮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래흙, 설탕, 물 등입니다.

뚜껑이 없는 작은 단지는 큰 단지의 한가운데 거꾸로 세워 놓습니다. 두 단지 사이의 공간은 모래 흙으로 완전히 채워 넣습니다. 흙을 너무 꼭꼭 채워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미들이 굴을 파기가 힘들답니다.

개미는 뒤뜰이나 공원에 나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작은 병이나 강통에 설탕과 물을 조금 섞어 넣어 개미 미끼를 만들어 개미 동산 근처에 누

어 놓으세요. 약 20마리쯤 들어가면 단지의 뚜껑을 덮거나 비닐로 덮으세요. 흙을 채운 단지에 그 개미들을 넣고 뚜껑을 덮으세요. 이때 모두 같은 편 개미만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죽일 거예요. 뚜껑을 열고 먹이를 줄 때, 개미들이 숨 쉴 수 있게 신선한 공기도 들어가게 된답니다.

단지에 개미를 너무 많이 집어 넣지 마세요. 개미 수가 적을수록, 더 활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굴을 파고 방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미 먹이로 일주일에 한번씩 설탕물 몇 방울과 곡식이나 풀씨 몇 알을 주세요. 먹이는 흙 위에 놓아 주면 된답니다.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그러면 죽는답니다. 개미 단지는 보통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난로나 에어컨이나 직사 광선은 피해 주세요. 여러분이 개미 단지를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개미들은 완전한 지하 개미 도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



타마허구

어느 길로 갈까요?

렉스 시 리브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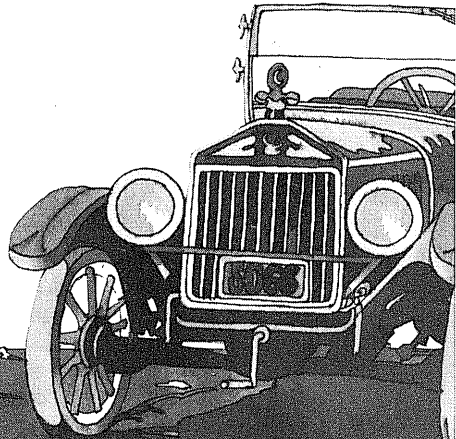
찬란한 황혼의 마지막 빛깔이 서쪽 지평선으로 사라지자, 사막 위에 어두운 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친과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날 밤과 다음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읍니다.

부친은 건강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었으며, 만아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500마리의 양떼를 몰고 135킬로미터나 되는 사막을 건너 새로 구입한 새 축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막은 물이 거의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운 밤에 양떼를 몰아가고 무더운 한낮에는 쉬게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양떼가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랐읍니다. 사막을 건너기만 하면, 목마른 양떼에게 먹일 물통을 실은 마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마실 물은 구식 차의 뒷쪽에 실은 19리터의 우유통에 들어 있었읍니다.

부친은 온화하고 사려깊은 분이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밤 네가 자는 동안 내가 양을 몰고 가마. 아침에 잠을 깨면, 식사를 하고, 천막을 거두

어 차 속에 집어 넣고, 차를 몰고 길을 따라 오거라. 그러면 곧 나와 양있는데 까지 쫓아 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부친은 밤새 양떼를 몰고 사막을 행군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 급히 식사를 하고 짐을 챙겼읍니다. 나는 사막에 난 마차 길을 따라 구식 차를 몰고 갔으나, 아버지와 양의 표적을 알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암반 지역을 지날 때는 그 자취를 따라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전까지의 처음 몇 킬로미터는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친이 그곳에 나타나 어느 길로 가야할지 일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



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오른쪽으로 난 좁 나온 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 사고없이 몇 킬로미터쯤 가다가 길이 깊이 빠져 유실된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부터 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도나 길 표시 하나 없는 가운데 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소년단 지도자가 한 말

씀이 생각났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그리고 무엇이든 신호가 될 만한 것을 보내라.”

나는 차에서 구식 엽총을 꺼내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공중에 대고 빠른 속도로 세 번 공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잠시 더 기다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생각되었을 때, 저쪽에서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부친을 보았습니다. 것처럼 멋있는 재회를 한 지 얼마 안되어 우리는 양떼와 더불어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친이 나를 염려해 주시고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야말로 구제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사막을 횡단한 이후에도, 여러 번 여행을 했습니다. 그중에도 위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어 두 갈래 길에서 도로 안내 표시가 없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맞바꾸기

클라우디아 레밍톤



전거를 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정말 잘 바꿨다고 생각했다.

툼은 뜰로 들어가는 흰 나무 문의 걸쇠를 벗기고 집을 한 바퀴 돌아 뒤뜰의 버드나무 밑에 세워 놓은 토끼장으로 갔다. 그는 돌연 멈칫 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토끼장의 문이 열려 있고, 빨간 토끼가 없어진 것이다.

툼이 휙 몸을 돌려 집안으로 달려 가는데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토끼와 맞바꾼 그 초록색 자전거가 토끼장 옆에 누어져 있는 것이었다. 툼은 자전거를 세워서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자동차에 치인 것 같았다. 그는 자전거를 내던지고 집으로 뛰어갔다.

불이 환이 켜진 거실로 뛰어 들어가자, 브렌트와 아이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툼은 그들의 얼굴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지?”하고 물었다.

“레스터가 차전거를 가지고 와서 토끼를 도로 가져 갔어.”라고 아이반이 말했다.

“내 그런 줄 알았어!” 툼이 화가 나서 말했다. “왜 너희들은 그걸 보고도 막지 않았니?”

툼은 자기 자전거를 토끼와 바꾸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1.6킬로미터나 떨어진 집까지 걸어다녀야 했다. 그의 동생인 아이반과 브렌트는 그들의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가버렸다. 그들은 처음부터 툼이 그렇게 바꾸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뉴질랜드 산 붉은 암토끼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이었다. 이 토끼를 존스가 갖고 있는 뉴질랜드 숫토끼와 교배시키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 자

“내가 문을 열지 못하게 했지만, 나를 막 밀어 버렸어.”하고 아이반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줄무늬 셔츠를 걸어 올리고 어깨의 상처를 보여 주었다.

“그는 자전거가 엉터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토끼를 도로 가져 간다고 말했다.” 브렌트가 보고했다. “그러면서 형이 토끼를 다시 가져 가려고 한다면, 네 명의 소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형을 때려 주겠대.”

“레스터가 자기는 형한테 좋은 토끼를 주었는데, 형은 쓰지도 못할 자전거를 주었다는 거야.” 아이반이 설명했다. “형, 레스터하고 싸울거지? 우리도 도와 줄게. 켈킨스네 아이들도 거들어 줄거야.”

그때 아버지가 앞문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세 아들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하고 말했다.

툼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렸다. “내가 줄 때 그 자전거는 좋은 것이었어요. 암토끼 값은 충분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이에요요.”하고 아이반이 거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트랙터 같은 것으로 밀어 부쳤을 거예요.” 브렌트가 말했다.

“그래서 너는 어쩔 셈이냐?”하고 아버지가 큰 안락 의자에 깊숙히 파묻히며 물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서 “그것은 싸울 일이 아니야.”라고 주의를 주었다.

툼은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하고 물었다.

“이럴 경우에는 구세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구세주에게 화나는 일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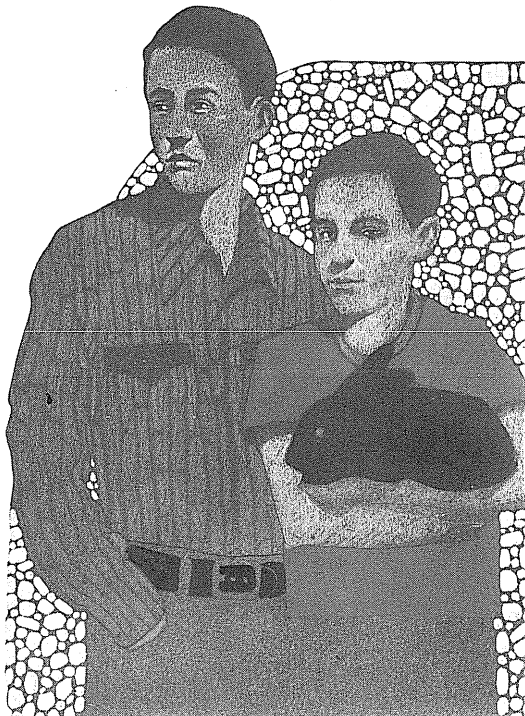
나요, 아버지?”

“그들은 항상 주님을 당황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주님에게 죄를 씌울 수 있는 말씀을 하시게 했단다.”

“구세주는 싸우지 않았지요?”하고 브렌트가 물었다.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으셨단다. 그는 자기 마음과 싸워서 항상 옳은 답을 얻으셨단다.”

아버지는 다정한 눈초리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했다. “레스터 심프슨은 다



음 달에 집사로 성임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애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시장하구나, 자, 밥먹자.”

툼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토끼장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토끼들은 모두 보통의 흰 토끼들이었다. 그 토끼들은 식구들에게 고기를 대주기도 했고, 남은 것은 이웃에게 팔기도 했다. 그는 “나는 진짜 순종 토끼를 가졌었는데, 이제 결국 없어졌구나.”하고 생각했다. 툼은 아직도 반질반질한 부드러운 털과 그 밑에 있는 조그맣고 통통한 몸통이 손끝에 만져지는 듯했다. 페스터는 정말 그 토끼를 잘 키웠어. 나는 그 토끼를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단순하고도 분명한 해결책이 생각났다. 그 토끼를 사면 될 것이다. 그가 토끼를 키워서 번 돈은 대개 교복이나 기타 학용품들을 사기 위해 썼지만, 7, 8불은 저축해 두었다. “어쨌든 그것은 투자야.”

툼은 토끼를 사러 갈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페스터와 그의 험상궂은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가 싸우지도 않고 이미 정당하게 바꾼 토끼를 산다면, 틀림없이 “비겁자”요 “어리석은 놈”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동생들, 특히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싸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반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툼의 해결책은 그다지 현명하거나 뾰족한 방책으로 생각되지는 않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툼은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가족에게 자기 결심을 말하고 아버지에게 그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아주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툼은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방과 후에 곧장 가겠어요.”하고 툼이 말했다. “집에 좀 늦게 올 거예요.”

툼은 그날 학교에서 페스터를 보았으나, 말을 걸거나 쳐다보지도 않았다.

방과 후에, 툼과 그의 동생들은 페스터의 집쪽으로 갔다. 툼은 페스터가 몇몇 친구들과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힐끔힐끔 뒤돌아보기도 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설 때, 툼은 아이반과 브렌트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씩씩하게 지켜 보았다. 앞서 가던 소년들은 뒤를 돌아보고, 툼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페스터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툼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페스터와 그의 네 친구가 토끼장 옆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툼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곧장 페스터에게 갔다. 그는 “그 붉은 토끼를 사러 왔어.”하고 말했다.

페스터는 놀란 듯이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다 찌그러진 다른 자전거를 가지고 바꾸자는 거지?” 그가 다시 그 친구들을 보자, 그들은 와 하고 웃었다.

“아니, 현금 15불을 가지고 왔어. 그 거면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해! 툼은 페스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페스터는 이번에는 웃음을 거두고,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구뚝발로 흙을 툽툽 찼다. “그만하면 되겠니?” 툼이 재촉했다.

페스터는 결국 “좋아, 그렇게 하지.”

라고 말했다.

툼이 돈을 건네 주었으나, 레스터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이 슬며시 킬킬대기 시작했다. “정말 바보구나!”하고 한 아이가 속삭였다.

툼은 토끼장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는 뉴질랜드 토끼를 꼬집어 내어 샴시 밑에 안았다. 토끼가 그의 살갓에 착 달라붙자 그는 다시 즐거움을 느꼈다. 그들은 그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었다.

그러자 비웃기 시작했다. “싸우기가 무서운 모양이지.”

“재는 늘 겁장이야. 동생들도 똑같애.”

“싸우지 않도록 아버지가 돈을 주었겠지.”

그러면서 그들은 크게 웃어댔다. 레스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톼은 문 밖으로 걸어 나와 평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토끼는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가 집까지 반 정도 왔을 때 뒤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레스터가 오고 있었다. 톼은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레스터가 다가오자, 말없이 함께 걸어갔다. 이윽고, 레스터가 말을 꺼냈다. “왜, 너 싸우지 않았니? 네 동생들도 너를 도와 줄 것이고,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툼은 레스터를 보고 웃었다. “레스터, 나는 싸워서 이겼어. 나는 이 좋은 토끼를 가졌어.” 그는 자기의 샴시를 특특 쳤다. “너는 어떠니?”

그들이 잠시 동안 조용히 걷고 있을 때 레스터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톼에게 주었다. “난 별로 얻은 게 없어. 자, 여기 네 돈이 있어.” 톼은 그것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아버지가 가죽용 트럭으로 자전거를 치었어.”라고 레스터가 설명했다.

“그런 것 같았어. 그런 일이 생겨서 안됐대.”라고 톼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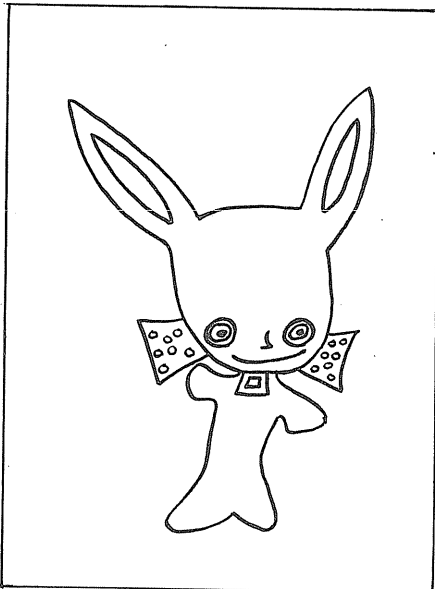
“그래, 때로는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이 토끼는 참 좋은 놈이야. 레스터, 너는 토끼를 참 잘 키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네 토끼를 더 사고 싶어.”하고 톼이 말했다.

“물론이야.” 레스터가 웃었다.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좋아. 나, 집에 가야겠어.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는 톼의 등을 가볍게 치고, 뒤돌아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툼은 토끼를 높이 쳐들고, 웃음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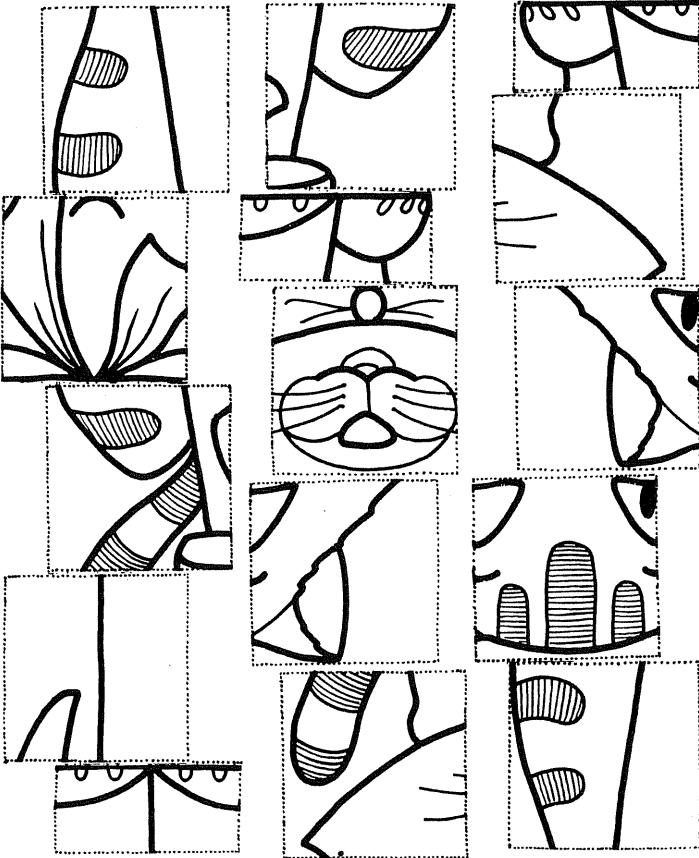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시모시모프T리

이 페이지에 도화지를 붙이고,
점선을 따라 오린 다음에,
다시 붙여서
고양이가 되게 해보세요.



로버타 엘 페어럴



할아버지의 봉사와 고귀한 부름

캐드린 루백

내가 12살 때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친절하시고, 은유하며, 말할 수 없이 좋은 성도의 표본이 되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돌아가심을 믿기 힘들었으며,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가장 친한 분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이 그를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열성적이기는 했지만) 할아버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는 걸인에게 자기 구두라도 기꺼이 벗어 주시며, 자기의 외투를 자기보다 더 추워하는 사람에게 벗어 주실 정도로 큰 사랑을 지닌 분이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믿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는 봉사와 고귀한 부름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기본적인 선함과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러나 봉사는 직책과 같은 뜻이 아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부름을 받고 봉사하든,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석에서 봉사하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부름

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형식화할 수 있으나, 봉사는 그것이 교회 조직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름받는 것이든, 다른 사람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든간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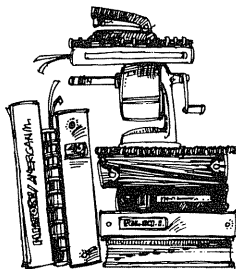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하게 되는 길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다. 브리감 영 대 학교 대학원의 천시 리틀 대학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부유하고, 재능이 많고, 지위가 높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작은 사람이 보다 큰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은 참다운 봉사가 아니라 노예 정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불쌍한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참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간구하며(모로 7: 47—48 참조), 솔선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구세주의 생애를 본받고자 노력하셨다. 할아버지의 생애는 헛되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생애를 통해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음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할아버지의 생애에서 단순하면서도 영향력있는 선한 행위에 대하여 내 아이들에게도 말해 줄 것이다. 우리도 누구든지 그가 한 대로 선행의 본을 따르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먼저
선교 사업을!

로즈마리 펙



1978년에, 15,860명의 말일성도들이 예언자로부터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숫자 가운데에는 대학과 운동과 음악 및 기타 여러 다른 활동 분야를 제쳐놓은 수천 명의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시 그들이 중지했던 곳으로 되돌아와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미련없이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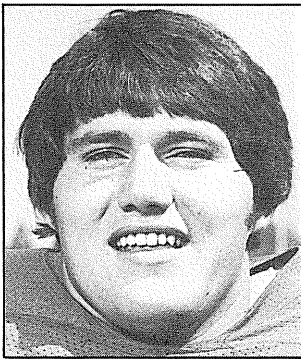
그래나이트 고등학교 팀에 속해 있었으며, 16세 때에는 그 지역의 우수 선수 팀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상급반에 들어가서는 주의 우수 팀에 선발되었다.

랜스가 브리감 영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신입생으로 대표 팀에 속할 수 있는 영예를 가졌으며, 그 대표 팀은 학교에 우승을 안겨 주었다. 2학년 때도 그는 선발 팀에 속했으며, 3학년이 되어서는 우수 선수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는 팀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유일한 선수가 되곤 했다. 그러나 랜스가 선교사로 나갈 시간이 되었다. 항상 선교사로 나갈 계획은 세우고 있었으나, 마지막으로 결정하기가 힘든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축구에 대한 모든 희망이 끝장 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축구와 선교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선교 사업을 선택했다.

후에 5년간 프로 계약을 맺은 랜스는 선택을 하는 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습니까?”하고 그는 반문한다. “학생이나 운동 선수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서 하던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2년간 연기할 뿐이지요.”

그는 다음 사항을 알고 그대로 행했다. 랜스는 선교 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도 개인 시간(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신체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중 조절에 힘썼으므로, 체육복을 다시 입고 무리없이 쉽게 게임에 임할 수 있었다. 2주일이 지나자 그는 축구장에서조차 자기 집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시즌에서 그는 브리감 영 대학의 선발



랜스
레이놀즈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면서도, 2년간 떠나 있는 것이 혹시 그들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염려로 착잡한 심정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랜스 레이놀즈도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축구는 어려서부터 그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어린 시절이 축구 팀으로부터 그의 축구 경력은 시작되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팀에 속했다. 4학년 때 그는 전미 지역에서 명예롭게 여기는 서부 체육 대회상을 받았다. 그는 최우수 프로 축구 팀인 핏츠버그 스틸러스 팀에 입단하였다. 그는 현재 필라델피아 이글스 축구팀에 속하여 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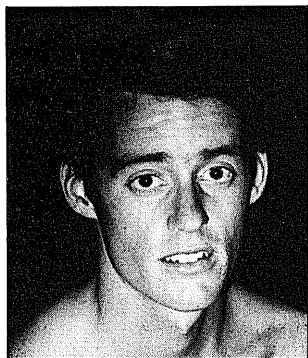
축구와 마찬가지로 수영도 선교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마크 맥그리거도 2년간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수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브리감 영 대학 수영 팀에서 자유형 선수였던 마크는 그 팀에 다시 속하게 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었으므로, 그는 선교사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운동하고, 특히 수영 선수에게 꼭 필요한 팔 운동을 하여 계속 신체를 단련시켰다.

고등학교 때 마크는 전미 고등학교 선수권자로 선발되었다. 선교사로 떠나기 전애,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신기록을 수립하고 200미터와 500미터 자유형 종목에서 서부 체육 대회상을 받았다. 그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그가 세운 200미터 기록은 다른 선수에 의하여 깨어졌다.

코치인 팀 파우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영 선수에게 어려운 점은 현역에서 쉬고 있는 동안 자꾸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여 기록이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크는 단지 다시 돌아와 예전의 기록을 다시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좀더 잘해야 했다. 그는 더 잘하고 있으며, 선교사로 나가려는 친구들에게 큰 표본이 되고 있다. 다시 선수가 된 이래, 그는 200미터 자유형에서 학교 기록을 다시 보유하고, 500미터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세운 기록을 깨뜨렸다. (학교의

신기록은 현재 같은 팀에 속한 존 소르비치가 보유하고 있다.) 마크는 다시 브리감 영 대학에 속하여, 그와 그의 코치는 큰 기대를 품고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운동 선수인 에드 메이지는 한국의 서울 선교부에서 귀환한 선교사로 남다른 경험을 했다. 그는 레슬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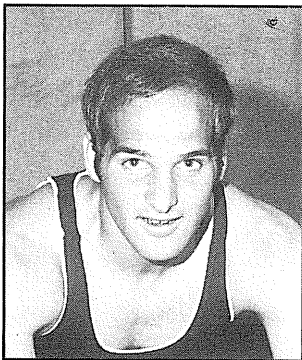
마크
맥그리거

통해 복음 토론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한번은 에드가 군사 기지에서 일하도록 지명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기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다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에드는 고등학교 레슬링 팀의 부코치가 되었으며,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과 후에 복음 토론을 하였다.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양 정모와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으며, 에드

는 양 선수 및 국가 대표 팀과 연습을 하였다. 그것도 분명히 흥미있는 경험이 되기는 하였지만, 에드는 가장 보람있는 경험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레슬링은 단순히 문을 열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에드는 귀환한 후에 많은 참피온 자리를 획득했다. 불행하게도, 그는 전미 대학 체육 경기 연맹 결승전에서 어깨가 탈구되는 불행을 겪었다. 그의 부코치인 벤 오하이에 의하면 그는 여전히 뛰어나다고 했다. 그가 참피온 방어전



에드 메이저

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했던 라운드에서의 점수는 11—14였다. 그는 전국에서 6위를 차지했다. 에드는 1978—79년도 브리검 영 대학 학생 체육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미 대학 체육 경기 연맹 장학생으로 이번 가을에 네브라스카 치과 대학에 입학했다.

이러한 체육인들은 선교사로 봉사하여 그들이 더 훌륭하게 되었다고 생각

하는가? 분명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마크 맥그리거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과 운동 경기 사이에는, 특히 정신적인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신을 갖는 태도는 그 양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인 정신적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수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랜스는 열성과 집중력과 자제심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위의 세 사람은 한결 같이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스포츠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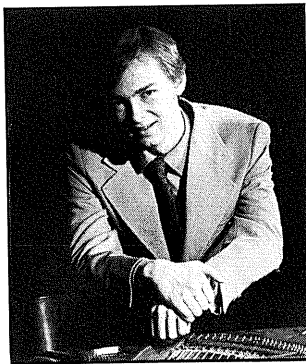
어떤 선교사들은 귀환한 후에 스포츠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능력이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주로 취미가 변한 것에 원인이 있다. 에드와 마크와 랜스는 다 같이 선교 사업을 하는 어떠한 체육인이라도 부지런히 자신을 단련시키면 이전의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랜스는 무엇을 준다 해도 선교 사업의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간다면 체육에 관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켄덜 빈은 네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온 콘서트 피아니스트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자주 협연하기도 했고, 페토펠의 피아노 콘첼트 제2번과 거헌의 랩소디 인 블루를 독주하기로 했다. 그는 북부 캘리포니아 청소년, 바하 페스티벌에서 2년간 입상했으며, 1971년에는 상향회 청소년 예술가 축제의 우승자로 물론 청소년 심

포니와 함께 태버내클에서 독주를 했다. 1974년에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피아노 부문에서 웨이크펠드상을 수상했고 스티라 학생 템플 힐 오르간 연주회에 참여했다.

켄덜은 실력을 향상시키며 잘해 왔으나, 그것을 뒤로 제쳐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있는 동안, 그는 주께서 자신이



켄달 빈

니다. 그녀는 내가 이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답장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켄덜의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주님은 그가 음악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켄덜과 음악에 재능이 있는 다른 선교사들은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선교사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의 선교 활동에는 많은 비회원들이 찾아오는 개관식과 연주회 등에서의 연주도 포함되었다.

켄덜과 몇몇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사들이 자유 시간을 이용해 농구를 하는 한두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연주회에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었다. “나는 그 2년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재능을 지켜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그대로 쓸 수 있었어요. 것처럼 연습을 하지 않고 연주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켄덜은 귀환하여 집으로 돌아온 해에,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유타주 피아노 경연 대회와 유타주 음악 교사 협회 대회에서 각기 2등을 차지하였다. (덧붙여 말하자면, 양자의 경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역시 귀환 선교사인 맥 윌버그였다.) 켄덜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엘 세리토에서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의 지휘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음악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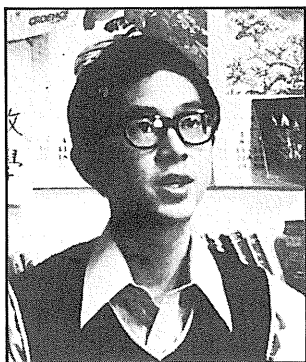
때때로 학생들은 (또는 그들의 부모)

선교 사업을 마친 뒤에 계속 음악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걱정했다.

켄덜은 평소부터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주던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도 나에게 지금은 그런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며, 사실,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탄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

선교 사업이 그들의 연구 과정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열려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것처럼 강조하는 교회에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할 연령기에 접어든 19 내지 21세의 젊은 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학의 성적 증명서에 귀환 선교사들이 전보다 더 훌륭한 성적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수한 학생이었던 로우데스의 장학생 게릿 공은 스스로 그



게릿 공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선교 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연구하는 태도와 학문에 대한 집중력과 동기 부여를 높여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이 인간의 경험 세계를 넓혀 주며, 주위 세계에 대한 안목과 이해심을 넓혀 주며, 그 세계에 대하여 알

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 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것처럼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보다 깊은 뜻을 품고 학업에 전념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게릿은 선교 사업과 교육 또는 선교 사업과 미래의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우리 생활에서 신앙과 일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학문하는 정신과 선교 사업의 정신을 통합시키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교육과 선교 사업을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선교 사업은 그의 교육적인 면이나 미래의 기회에 대하여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어떠한 기회를 찾는 데 필요한 첫번째 실질적인 단계로 생각한다.

제임스 알 히프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을 때는, 의과 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로, 전문의 과정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선교 사업이 그의 전공 분야에서 그에게 방해가 되리라고 열려하지 않았다. 귀환한 후에 그는 곧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해 나갔다. 그는 전문의 과정에 들어갔으며 학교에 복학한 첫해에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을 이수했다. 그는 계속 학업에 정진한 다른 많은 학생들과 같은 나이인 26세 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덧붙이자면, 그는 당시 학생 지부의 지부장 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후 그는 일리노이주의 스코트 공군 기지 메디칼 센터에서 삼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가족 담당 전문의로서 위치를 굳히고 있다.

그는 인턴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교회 봉사 활동에 주력하여, 집행 서기, 주일학교 교사, 고등 평의원 등 여러 가지 책임있는 부름을 완수했다.

히프 박사는 선교 사업은 의사로서 성공하는 데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대학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능력과 학문에 정진하는 속도가 증가되었다는 것

을 알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복음 선교 사업에 시간과 재능을 헌신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지성에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더함으로써 훌륭하고 덕망 있는 의사로서의 완전한 구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히프 박사는 현재 남편과 다섯 자녀의 아버지와 의사로서 맡고 있는 책임 외에도, 시간을 내어 와드 음악 위원장, 와드 오르간 반주자, 합창단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 관계 교사와 신진 준비 세미나 교사로도 일한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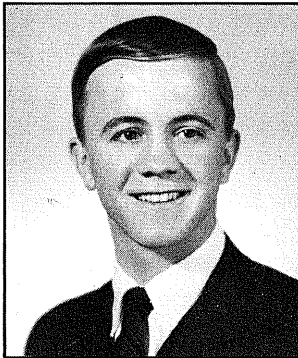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줄수록, 나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하고 그는 대답한다. “나는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꼈습니다.”

히프 박사나 켄덜과 그의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타난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은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조금도 잃는 것이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



제임스
알 히프



익살꾸러기와 함께 울다

안야 시 베이트맨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첫날, 엘리스 프링글과 두번씩이나 같은 반에 속하게 된 것을 알고 행운으로 생각했다. 행운이라고 말한 것은 엘리스가 있는 반은 재미있기 때문이었다. 엘리스는 곧잘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곤 했다. 엘리스는 홀렌다 고등학교에서도 유명한 익살꾸러기로, 눈썹을 높이 치켜 올리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진짜 코메디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녀를 과히 좋아하지 않았지만, 급우들은 누구나 그녀를 좋아했다. 복도에서 학생들끼리 만나면 서로 “오늘 엘리스가 어떻게(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어?”하고 물을 정도였다. 누가 엘리스냐고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엘리스가 누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서 엘리스가 나를 놀리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 아마 내가 부끄럼을 잘 타고 곧잘 얼굴을 붉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때마다 내 얼굴은 더 붉어졌다. 어쩌면 내가 너무 내 일에 열중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빌, 나 좀 봐.”하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안경을 밀어 올리는 모습을 흉내내곤 했다. 어쩌면 내가 몰몬이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책선생님이 칠판에 쓴 문제를 풀어 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의식중에 잠시 담배무는 것처럼 백묵을 입에 갖다 대었다. 엘리스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다. 그녀는 “빌!”하고 큰소리
리로 불렀다. “물론이 담배 피우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나는 재
빨리 백목을 입에서 빼었으며, 25명의
학생들이 깔깔대고 웃는 바람에 또 얼
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
아와 농담으로 응수하여 엘리스를 놀
라게 했다. 나는 기침하는 흉내를 냈다.
엘리스는 그걸 좋아했다.

나는 엘리스가 놀리는 것이 그리 나
쁘지 않았다. 전에는 이처럼 관심을 ‘끌
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
미가 있었다. 엘리스는 농담할 때라도
전혀 악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농담하는 법
이 없었다. 엘리스에게 놀림당하는 것
을 나는 칭찬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수
학 시간에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수업
이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
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엘
리스는 농담만 했다. 그러나 차차 달라
져 갔으며, 나는 엘리스가 익살꾸러기
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참으로 엘리스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
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때, 나는 하마터
면 우리 우정을 깨뜨릴 일을 할 뻔했다.

손다이크 선생님은 예고도 없이 스페
인어 단어 시험지를 나눠 주었다. 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대개 그 선
생님이 언제쯤 시험지를 나눠 주실지 알
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감쪽같이 속았
던 것이다. 나는 그 전날 밤에 낱말은
대충 한번 훑어 보고 물리학 공부만 했
던 것이다.

나는 시험이 끝난 뒤에, 완전히 망쳤
다는 것을 알았다. 최소한 14개의 낱말
은 틀렸을 것이다. 그런데, 창피스럽

게도, 손다이크 선생님은 시험 점수를
우리가 매기게 하였다. 선생님은 시험
지를 거두어들인 다음 아무렇게나 돌
려주었다. 누군지 내 시험지를 받은 사
람은 나를 정말로 바보로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다이크 선생님은 점수를 기록한 다
음날, 우리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주셨
다. “빌, 축하한다. 100점을 맞은 학생
은 너 하나뿐이다.” 선생님은 시험지를
돌려주시며 그렇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을텐데요.”

“잘했다.”

“아닙니다. 저는……” 나는 시험지를
들여다보았다. 시험지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한 구석에는 크
게 100점이라고 적혀 있고 밑줄이 그어
져 있었다. 나는 놀라서 숨이 막힐 지
경이었다. 빈 칸으로 남겨 둔 곳을 누군
가 조심스럽게 채워 넣었던 것이다. 누
군가 나를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이
다.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 내가 교실
을 둘러보니 엘리스 주위에 앉아 있던 학
생들이 나를 보고 킁킁대고 있었다. 엘
리스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싱글벙
글하고 있었다. 나는 엘리스가 내 시험
지를 받아 고쳐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스,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나는 생
각할수록 기분이 나빴다. 나는 시험지
를 내려다보았다. 도저히 그 점수를 받
아들일 수 없었지만, 손다이크 선생님
은 이미 그 점수를 기록하셨다. 그렇다
고 해서, 엘리스의 죄상을 밝힐 수도 없
었다.

“너는 시험을 잘못 쳤다고 했잖아.”

친구인 랄프가 함께 교실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시험지
를 들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100점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엘리스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라 적힌 점수는 가리고 있었다.

나는 “엘리스가 나를 끌려 주려고 그런 거야.”라고 말했다.

“아니야.” 랄프는 웃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지? 너라면 어떡하겠니?”

“모르겠어. 그냥 잊어버리지, 뭐.”

“랄프, 나는 그 점수를 인정할 수 없어 너한테 잘못했다고 했잖아.”

“손다이크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 가서 점수를 고쳐 놓을까?”

“어림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그냥 잊어버려야지, 뭘. 네가 엘리스를 곤란하게 하면, 학생들이 모두 너에게 화를 낼거야.”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나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고 있어. 그들은 누가 말일성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잖아. 내가 한 개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 테니까,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그렇다면 학교 학생들이 너를 미워하게 된다고 해서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겠니?”

“그렇기는 해.”

“그러니까 잊어버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나는 랄프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나 그날의 끝 시간인 수학 시간에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엘리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 스페인어 시험 100점 받았지?” 엘리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엘리스가 우스꽝스런 얼굴을 하지 않을 때는, 꽤 예쁜 편이었다.

“그래.”하고 나는 말했다. “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지?” 그녀도 내 비참한 심정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공부도 하지 않고 100점을 받았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구나.”

“사실 그래.”하고 나는 말했다. “엘리스, 네가 나를 궁지에 몰아 넣은 거야.

나는 그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100점이란 점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구나. 빌, 넌 정말 재미없는 아이야.” 그녀는 아주 재미있는 척 했다. “그럼, 손다이크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렴. 나는 팬잖아.”

“나는 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난 상관없다고 말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그녀는 걱정되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말해서 사태가 나아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중에, 내가 손다이크 선생님께서 말하지만 않는다면 엘리스가 내 시험 답안지를 고쳐 놓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만 선생님께서 누군가가 내 답안지를 고쳐 놓았으며, 사실은 시험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수가 아니라 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선생님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나에게 누가 답안지를 고쳤는지 묻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엘리스를 의심한다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은가? 또, 선생님이 누가 그랬는지 아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정정당당하게 아무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이다. 수학 시간이 끝난 뒤, 나는 엘리스에게 웃어 보이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나는 “걱정 말아.”하고 말했다.

나는 수업을 마친 뒤에 곧장 스페인어 교실로 들어가 손다이크 선생님께서 사정을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화가 나신 것 같았으나, 누가 그랬는지 아느냐고

묻지는 않으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이 수에 줄을 긋고 가라고 써넣는 것을 지켜 보았다.

나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다음에는 좀더 잘 하겠읍니다.”하고 말했다.

선생님은 “그래.” 하고 응대했다.

나는 그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튿날 선생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채 우리 앞에 섰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저께 누가 빌 맥킨리의 단어 시험지를 고쳐 놓았다.” 손다이크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맞는 답을 적어 넣어 빌에게 부당한 점수를 주었어. 자,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내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다. 엘리스의 죄상이 들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겠다.” 손다이크 선생님이 말했다. “그 사람이 자백하지 않으면, 반 전체가 벌을 받게 된다. 지금 당장은 그 방법을 모르지만 반드시 큰 벌을 생각해 낼 것이다. 자, 누가 그랬지?”

나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속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쥐 죽은 듯 조용한 교실에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나는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다. 그러자,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말이 튀어 나왔다. “저는 아무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해, 빌.” 손다이크 선생님이 엄하게 말했다. 그는 대사를 의듯이 다시 한번 말하는 데, 누가 그랬지?”라고 말했다.

“저는 아무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다시 한번 나 자신도 놀랐고 손다이크 선생님도 놀래서 입을 벌린 채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선생님이 나를 꾸짖을 사이도 없이, “내가 고쳤습니다.”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야?” 손다이크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엘리스가 용감하게 말했다. “그냥 장난으로 그랬어요.”

엘리스를 좋아하지 않았던 손다이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로 인하여 선생님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난 이런 일에 지쳤어.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선생님은 언성을 높였다. “너희들은 이제 졸업반이야. 난 이런 장난은 질색이다. 너무 철이 들지 못했어. 내년이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 짓만 하고 있거나? 엘리스, 수업이 끝난 뒤에 이야기 좀 하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는 못하게 하고 싶다. 내 뜻을 분명히 알겠니?”

“예.”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정말로 참담한 기분이었다. 랄프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하고 생각했다. 그건 별로 매수롭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것처럼 사소한 문제를 크게 벌려 놓고 곤란하게 하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못했을까?

나는 뒤에 수학 시간에 엘리스 옆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너는 나를 단지 재미있는 사람 이상으로 대해준 몇 안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야. 항상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힘들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돼.”

그녀도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려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엘리스.”하고 나는 속삭였다. “미안해, 선생님이 그렇게 화내실 줄 몰랐어. 정말 나도 마음이 아퍼. 선생님이 베키 뭐라고 하셨니?”

“이번 학기 성품 평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 굉장히 화가 나셨어.”

“나는 일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야.”

“알아.”하고 그녀는 말했다. “웬참아 걱정하지 마.” 그러나 문제는 벌어졌다. 나와 엘리스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는 농담을 주고 받았으나, 나를 놀리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라도 냉담하게 대했다. 그때는 엘리스가 화가 난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녀가 난처해서 그럴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된 것이 슬펐지만, 학기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의 우정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엘리스의 오빠 피트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

“나는 지금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다. 그러한 소식은 잘 퍼지는 법이다. 일주일 내내 수학 시간에 내 옆 자리는 비어 있었으며, 나는 엘리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엘리스에게 편지라도 쓰고 싶었지만, 무어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또한, 엘리스는 내 말 같은 것은 듣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엘리스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방과 후에 길버트 상점에 들러 적당한 위문 카드를 찾았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 집으로 가지고 왔다. 나는 그것을 그냥 봉투에 넣고 봉하려다가 다시 꺼내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몇 마디 글을 적어 넣었다. 나는 피트가 엘리스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한번은 이런 말을 했다. “피트 오빠는 나하고 달라. 오빠는 농담도 별로 안해. 너처럼 유우머 감각이 좀 메마른 편이야.” 나는 그녀가 피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음성은 즐겁고 자랑스런 감정에 가득 차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마음이 변하기 전에 카드를 부치기로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녀에게 안되었다는 말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는 정도였다. 우리의 우정이 변하기는 했어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엘리스는 그 주 금요일에 돌아와, 수학 시간에 내 옆 자리에 앉았다. “잘있었니?” 나는 그녀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피곤하고 수척해 보였다.

“그래, 카드 잘받았어.” 곧 친구들이 몰려와 그녀는 그들과 어울려 무엇인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웃고, 엘리스가 전과 다른 것을 보고 안심했다. 그녀는 책상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방과 후에 너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럼.”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상수리나무 있는 데서 만나자.”

“그래.”

그녀는 종이 울린 후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조용히 거닐기 시작했다. “잠시 잔디밭에 앉아도 되겠지?” 엘리스가 물었다.

“그럼.”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잔디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손수건을 건네 주었다. “그냥 가자. 아무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울 생각은 없었어.”

우리는 학교 주변을 걷다가 노천 관람석 근처에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발견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너는 나를 단지 재미있는 사람 이상으로 대해 준 몇 안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야. 항상 재미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거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힘들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돼.”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우습게 들리지. 그렇지 않나?”

“이해할 수 있어.”하고 나는 말했다.

“바로 지금처럼 말야. 나는 우습게 행동하고 싶지 않지만, 우습지 않은 엘리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나는 농담도 하고 놀리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엘리스.”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크게 흐느껴우는 그녀 옆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할 따름이었다. “미안해.” 나는 그 말만 되풀이했다. “미안해.”

“난 정말 바보 같애.” 그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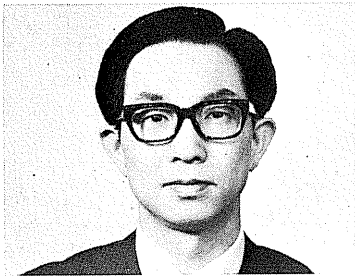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결국,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미소 지으려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널 만나자고 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하고 그녀가 농담조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그건 네가 보내 준 카드에 적힌 글 때문이야. 빌,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피트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강한 신앙을 갖고 있어.’ 그녀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 점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겠어.” 그녀는 격한 감정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집 식구들은 그다지 종교적이 아니야. 나는 오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다시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끊었다. “네가 믿는 것이라면, 나도 역시 믿을 수 있어.” 그녀는 웃어 보이려 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거든!” 다시 그녀는 입을 다물고 심각해졌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빌.”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힘을 주어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라고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내가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엘리스. 나도 너한테 더 자세히 말해 주고 싶어.” 이제는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손수건 감깐만 빌려 주겠니?” 나는 가능한 한 꾸밈없이 말하고자 했다. “이 조그만 만남이 끝나기 전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애.” *



순종하는 지혜

부산 선교부장
이 호남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항상 마을 청년들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잘못된 것을 꾸짖고 고쳐 주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항상 자기들의 잘못을 꾸짖고 충고하는 이 현자를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청년들은 이 현인을 마을에서 떠나도록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들은 현자에게 이런 문제를 내놓았읍니다.

“지혜가 많으신 선생님,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드려서 답을 맞히시면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맞히지 못하시면 우리의 충고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마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여 기 손 안에 작은 새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새 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새 입니까?”

이때 현자는 문제를 제시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읍니다.

“그 새의 생사는 너희에게 달렸다. 내가 ‘살아 있다’ 하면 꼭 꺾어서 죽일 것이요 ‘죽어 있다’ 하면 그대로 산채로 내놓을 것이 아니냐.”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시인하며 그 현인을 기꺼이 다시 스승으로 받들기로 약속하였읍니다.

그 젊은이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현인을 기꺼이 스승으로 받들었습니다. 결손하게 제자의 자세로서 스승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장 용기있는 자는 자기의 양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공과 실

패, 기쁨과 슬픔 등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좌우됩니다.

우리들은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의로운 생활을 하는 과정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생활의 기준이 꼭 필요함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이 있으니 모든 축복은 이 율법을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활의 기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율법을 순종하는 지혜는 고등 교육 기관이나 과학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손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을 잃어버릴 때 위험합니다. 농부는 농토를 떠나서는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학생이 책을 멀리하면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은 복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슬픔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늘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있으면서도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지상 생활을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길ियो, 빛ियो,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좇아 생활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